

연중 제14주일

교황 주일

기도서 384 면

제1독서 : 이 사 66, 10-14c

제2독서 : 갈 라 6, 14-18

복 음 : 루 가 10, 1-12. 17-20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神을 도울 수 있는 “나”

강 인 찬 신부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하느님께서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실 길과 하실 일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을 파견하심으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셨다. 그 뿐만 아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시며, 하느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역설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애타는 호소를 묵살할 수는 없다. 부족한 나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나를 필요로 하고 당신을 돕도록 바라고 계신다. 마치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말씀하셨듯이 말이다. 그 만큼 나는 그분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분을 돕기로 결심하자. 물론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을 파견하는 것은 마치 어린양을 이리베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하신 말씀대로 사납고 잔교한 이리베 속에서 주님을 도우며 살아남기란 매우 어렵다.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이리베 속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그분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평화를 심어 주는 일이다. 평화를 파괴시키는 미움이나 간제가 아니라 고통과 희생을 무릎쓰고라도 사랑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든자를 낫게 하는 일이다. 이 일을 기적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 물질적 방법을 통해서 치유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세째는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생활로써 전하는 일이다.

이제 나 자신이 하느님께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명심하자.

(관리국장 신부)



오만한

권력남용에 투쟁을

—교황과 장군

폴란드를 방문한 교황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보도기 관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교황에게 거는 기대와, 공산정권인 폴란드가 그의 조국이라는 점 등이 더욱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교황주일인 오늘, 그 기사를 다시 한 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의미를 새기면서 말이다.

「바르샤바 공항에 내리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일말의 암시조차도 내비치지 않았던 교황은 “자유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부여한 것이며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종교적 원칙론에서부터 출발. 불법화된 자유노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솔리대리티(자유노조)의 권리가 존속되어야 할 것”과 “농민노조의 이상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주장한데 이어, 마침내는 “오만한 권력의 남용에 맞서 투쟁”할 것을 폴란드 국민들에게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1년 6개월여의 계엄통치로 질식되어 가던 폴란드인의 자유노조 정신은 교황 방문으로 한 줄기 신선한 공기를 마신양 급속히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이는 교황이 떠나기 전날 교황의 향리 크라쿠프시에서 20만명이 벌인 대규모 자유노조 지지 시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교황은 또, 애초 군사정권에 의해 거부되었던 레흐 바웬사와의 만남을 폴란드 최고 통치자 야루젤스키 장군과의 담판을 통해 성사시킴으로써, 불운한 전 자유노조 지도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 그는 ‘불을 불이려’ 은 것이 아니라, ‘불씨를 지키려’ 왔던 것이다. 자유노조 정신이 지금 당장 활화(活火)되기 보다는, 폴란드인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지기를 교황은 바란 것이다.

참으로 시원한 소식들이다. 박수를 보내고, 두 손도 모으자.

숲 정 이 산책



건강히 다녀오세요

복자 안드레아 김 대건 신부님

하 나 + 하 나

이 해 경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의 성직자가 되신 김 대건(안드레아)신부님께서서는 함덕 솔피에서 태어나시어 불과 26세의 청춘으로 새남터 모래사장에서 군문효수 되셨으나 이로써 한국교회의 주춧돌이 되신 분이시다.

1836년 12월 2일 조선교회의 수석 성직자인 모방 신부님 앞에서 소년 김 대건은 15세의 나이로 신학생 되기를 서약하며 순명의 선서를 하였다. 이 선서를 한 후 일주 일째 되는 날 소신학생 김 대건은 중국인 유 방제 신부를 따라 서울을 출발 유학의 길에 올랐다. 중국땅을 거쳐 마카오에 도착한 것은 이듬해 6월 6일, 그 후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라틴어와 그밖에 몇 가지 외국어, 철학과 신학 및 서양의 신학문을 배운 다음 1842년 2월 귀국의 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조선땅으로 직접 돌아오지 못하고 만주에서 3년을 지내며 신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수업을 받는 한편 박해가 심한 조선에 무사히 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이리 저리 모색하며 함경도 북쪽 끝에 있는 훈춘까지 조사 여행을 다니곤 했다. 1845년 1월에 교우들의 도움으로 의주를 거쳐 일단 귀국에 성공하여 왔으나 같은 해 6월에는 상해에서 서품을 받기 위해 다시 출발하게 된다.

8월 17일 신품성사를 받은 그는 8월 31일 다시 상해를 출항, 뱃길로 제주도 연안에 도착한 다음 또 다시 배를 타고 북상 10월 12일 강경 부근의 황산포에 무사히 상륙하였다. 그러나 10년 고생 끝에 사제가 되어 귀국한 그는 불과 1년도 사목생활을 하지 못하고 체포되었던 것이다.

이렇게도 오랜 세월을 준비한 끝에 사제로서의 보람도 채 느끼지도 못했을 때 체포된 그였으나 그는 이 사실을 억울하게 생각지 않았다. 감옥에서 신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오히려 그는 신도들을 크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세상은 온갖 일이 막비주명(莫非主命)이요, 막비상주벌(莫非賞主罰)이다. 고로 이런 군난도 역시 천주의 허락하신 바니 너희 감수 인내하여 위주하고 오직 주께 간곡히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질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확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다 설위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몸 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청춘을 걸고 또 10년에 걸쳐 쌓은 초인간적인 노력과 공덕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실망치 않고 태연히 하느님께 신뢰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은 얼마나 장한가. 이는 바로 바오로 사도의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다"고 하신 말씀과도 상통하리라.

미사 첫 종이 울린 성당에서 어느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 특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박한 대화였지만 웬지 내 가슴에 와 닿는 것이었습니다.

A : 나는 왜 하느님을 일찍 알지 못했을까? 후회스러운 마음이야. 너무 늦게 하느님을 안 것 같애.

B : 정말 행복한 깨달음이군요. 그만큼 하느님을 갈구하는 마음을 알겠어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언젠가 2층 건물에서 시내를 내려다 보는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지는 것이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과 연결지어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먼저 신호등이 바뀐 것을 알고 한발 빠르게 건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땅을 내려다 보다가 조금 늦게 길을 건너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 도로상의 길은 모습과 감정은 다르고 그 속도는 다를지라도 '건넌다'는 행동은 같더군요.

A : 꽤 차원높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구나.

B : 그래요? 고3 때 일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그 이듬해였어요. 정말 왜 나는 하느님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가. 좀더 하느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강렬한 마음에,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의방에 있는 대모님을 찾아가 들뜨고 흥분된 마음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지요. 아마도 그것이 저의 첫번째 신앙고백일꺼예요. 하느님께 대한 열망만 확인한 채 해답보다는 그것을 알았다는 기쁨으로 일관했지요. 미묘한 기쁨이예요.

A : 미리내 성지순례 갔을 때 내 대머리가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군요. 그 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하느님 안에서 욕심없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척이나 좋아.

B : 정말 하느님 안에 사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인가 봐요. 하느님 안에 이렇게 일치될 느끼는 기쁨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교우집에 갈 때마다 기쁨을 안고 가요. 하느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의 손을 굳게 잡으며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A : 좋은 말이야. 그리고 보니 나도 그것에 가까운 일 하나가 떠오르네.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같은 기쁨에 노래를 시키길래 성가 103번 '주님 안에 우리 한 마음'이라는 성가를 불렀지. 네가 기쁘다니 나도 기쁘다.

이것이 두 여인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니다. 정말 아름다운 대화였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나의 발걸음은 마냥 가볍기만 했습니다. (서학동 본당)

☐ 보내주신 원고에 감사드리며 사제로 신심서적을 보내드립니다.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덕배)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도 매 상

서울 주 단

☎ ③ 0 4 5 3 ⑤ 5 0 9 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교우의 집

한 일 옷 감

옷감, 파티복, 침구류, 수의
전화 ② 7 2 0 3
구 남부배차장
(영신당한약방 옆)
조 성 순(테레사)



□ 제1회 전주교구 산간학교 안내

—시기—7월 28일(목)~31일(일)
—장소—내변산(중계 국민학교 근처)

□ 왜 교구 산간학교를 여는가?

해마다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피서나 물놀이를 위해 산이나 물가에 몰립니다. 가족단위나 또는 친구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가 10여년 전부터는 본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력관리나 프로그램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형식적인 연례행사(?)의 하나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에 금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하기 수련회를 교구차원에서 시도하고자 합니다. 교구내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폭넓은 만남과 사귄을 나누며 일치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교구 산간학교」를 여는 취지입니다.

□ 교육 프로그램은?

- 제1일...주제강의, 만남의 시간, 수영
 - 제2일...① 산책(자연 속에서 하느님과과의 만남 체험)
② 특강(한국 천주교회사), 수영, 참회에절
 - 제3일...③ 직소폭포 동반(형제들과의 일치 체험)
④ 체육대회, 수영, 모닥불 집회(캠핑 화이어).
 - 제4일...마무리 강의, 파견 미사
-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가할 것을 감안하여 전체 학생을 4개군으로 조직하고, 제2일과 3일의 프로그램은 순환운영(로테이션) 합니다.

□ 운영 조직은?

학생 조직은 군-반-분단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군에는 지도교사와 지도신부, 반에는 지도교사와 신학생, 분단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15~20명당 1명의 지도자와 본당 차원에서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는 지도교사를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 생활은?

중학생들은 중계 국민학교의 교실에서 잠을 잡니다. 따라서 침구와 취사도구는 필수적인 준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야영생활을 하게 되니 텐트와 침구, 취사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준비는?

산간학교와의 교통문제는 본당단위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부에 내야 하는 1인당 참가비는 중학생은 1천 5백원, 고등학생은 1천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지시하기 위한 지도자 모임이 7월17일에 있습니다.
※ 참가 희망자는 본당에 준비되어 있는 입교원서를(보호자와 본당 신부님의 허락을 얻어) 7월 6일까지 교구에 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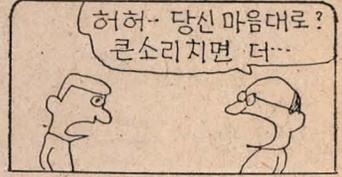
□ 방송안내

교구 홍보국에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방송을 이리 기독교 방송국을 통하여 시작합니다. 시간은 주일을 제외하매 매일 저녁 10시 10분에서 30분까지이며 제목은 "성가를 들으며"입니다. 성가와 함께 신부님들의 글이 소개되는 이 시간에 교구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 200주년 홍보용 카세트 안내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에 대한 의의와 목적, 그 진행과정 등을 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울교구 홍보국에서 제작한 "선교 2000주년의 뜻"이란 제목의 카세트를 소개한다. 본당은 물론 공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테이프이다. 가격-1,300원, 구입-성바오로 서원

요심이(517) 김병오



남여 사원 모집

내일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고령기업과 함께 할 참신한 사원을 찾습니다.

- 모집부문: 부녀사원...00명
- 영업사원...00명
- 관리직... 0명
- 간부직... 0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가능>
 제출서류: 이력서(본인 지참), 사진 2장, 경력서
 제출기한: 83년 7월 7일까지 (선착순)
 제출처: 고려기업관리과 (☎ ①-8276)
 (전주 퍼카티리극장 3층)
 군산영업소: ②-5610

고려기업

마춤 · 대여
 웨딩드레스 · 약혼복 · 연주복 · 부케 · 신부화장 · 비메오 촬영

신부의 집

동서관통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⑥ 6951
 정 인 기(논저노)

K.S. 표시 허가공장

신흥 콘크리트

☎ ⑥6016 ⑥6415
 대표 이교섭(요섭)

시멘트, 벽돌, 블록, 보도블록, 철근 콘크리트, 근거, 철근 콘크리트판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한복 학원

미용 시험일자 9월 18일
 2차 11월 6일

미용, 양재, 한복, 재봉과 수시 모집, 개인지도, 가정양재반, 기숙사 완비, 통학권 발급
 전주시 고사동 1가 429
 전북 적십자사앞 5층건물
 김베드로 · 김안나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

금보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감사회: 5일 오전 10시
 2.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회의: 3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각 분당 소년Pr 간부 전원
 3. 군중후원회 미사: 4일 오후 8시, 장소 가톨릭 센터 3층, 주례-유영도 신부님
 4. 월요성서: 매 월요일 오후 8시~9시, 가톨릭센터 3층, 범위-이사야
 5. 성령새신 봉사자 모임: 14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미사와 강의, 기도회
 6. 제3차 중·고지도자 연수회: 15일 오후 5시~17일 오후 1시(2박3일),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9,000원, 연수과목-구약성서, 레크레이션, 학습지도, 대상-각 분당 중·고지도자
 7. 제1회 히기 산간학교 지도자 연수회: 17일 오후 2시~6시(회비 없음), 대상-각 분당 산간학교 지도자
- 축! 영명: 복자 안드레아 김 대근 신부(5일)-김 진소 신부님

중앙

전화 0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철민, 사도 회장 김인협

1. 사도회 상임위원회: 주일 공식미사 후
 2. 7월 반장모임: 7일 오후 8시
 3. 첫염성체 및 초등부 영세 교리: 16일~8월 15일까지 대상-국민학교 3학년~6학년(사무실에 신청)
 4. 청년성가대 모임: 매 목요일 저녁 8시 젊은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목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28일까지 81,158단 봉헌
 6. 영세: 안드레아반 10일 공식미사 중
 7. 성진 신축기금을 위한 미술전에 협조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8. 성전 신축헌금 신임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신입-유현영·이언우(각 50만원), 박연자(3만원), 김유순(10만원), 문정님·오길남(각 3만원), 조윤숙(5만원), 정두병(1만5천원), 꾸리아 성지순례 잔액(150,130원), 신입누계-191,547,600원, 납입누계-33,275,934원
- 지난주 봉헌금: 833,153원 교무금: 1,251,000원

7.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강준희 ②은희영
 -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유기순 ②이상인
- 지난주 봉헌금: 524,650원

서학동

전화 0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보좌 신부 한형수, 사도 회장 김수현

1. 사도회 월례회: 6일 저녁 8시30분
 2. 자모회 모임: 5일 오전 10시 회의실
 3. 반장님 모임: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꾸리아 모임: 다음주일 오후 2시 회의실
 5. 차주전례: 독서-①신영장 ②함문권
신자들의 기도-김나섬·송규순·황복삭
- 지난주 봉헌금: 288,895원 교무금: 245,500원

숲정이

전화 0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09567 사도 회장 김수협

1. 분당신부님 영명: 11일, 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구역모임 보고서: 각 구역장께서는 6월분 구역회합 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4. 교황주일: 교황님을 위한 특별헌금 있음
 5. 아파트 소식
①신입 주일학교장-하정애(아가다)씨
②감사합니다-매주 제대꽃을 봉헌-이히야친따씨
- 지난주 봉헌금: 404,745원 아파트: 56,760원
지난주 교무금: 341,500원 아파트: 40,000원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가연습: 매 주 수요일(7월 6일부터) 20시30분
 4. 금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장원도·김영채
기도-정주복·홍성조
 - 차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박해근·이귀례
기도-김영채·김정분
- 지난주 봉헌금: 171,715원 교무금: 371,685원

전동

전화 신부 06208 주임 신부 김병두, 사부 03222 보좌 신부 박찬우, 수녀 0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분당 월보 창간: 다함께 축하와 성원을
 2. 까리따스 자모회 월례회: 5일 오후 2시
 3. 성심부녀회 월례회: 6일 오전 10시
 3. 영세식: 9일 저녁 8시, 새형제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 영세자 집중교리-4일부터 8일 저녁 8시(면접 포함)
 - 구역장·반장 모임: 6일 오전 11시
 - 주일 9시미사「키타 합주미사」봉헌: 금주부터 합주단 연습-매주 월요일 오후 6시30분 관성있는 젊은이들 많이 참여 바랍니다
 6. 성탄 영세예비자 교리반 모집: 금주까지 신청 바랍니다
 7. 다들주 모임: L.M. 꾸리아, 성모회
- 지난주 봉헌금: 468,913원 교무금: 341,500원

1. 사도회: 다음주
 2.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3. 자모회·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5. 어린이들의 모후(소년 꾸리아) 회의: 7월 3일 14시 전동성당 회의실
대상자-소년Pr 간부들
 6. 중·고생 유니트 회의: 각 쉐의장, 총무 전원 참석
요망, 오늘 오후 2시
 7. 성마리아 꾸리아 옥외행사
 5.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중구, 독서-①최정식 ②최종만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김병오 ②이영태
저녁미사: 해설-김석란, 독서-①김동수 ②이영철
- 지난주 봉헌금: 652,710원 교무금: 1,000,900원

파티마

신부 09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0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오늘은 교황주일: 교황을 위한 기도와 특별헌금음...
2. 꾸리아회: 다음주일 오후 2시
3. 부녀회·빈첸시오회: 4일 어머니미사 후
4. 성우회 월례회(야외행사): 17일 공식미사 후 출발, 장소-미정(상관 방면)
5. 봉헌금 미수금 완납 바랍니다
83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의무를 다합니다
6. 주일을 꼭 지키십시오: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전미사를 하세요

1. 오늘은 교황주일입니다: 교황님을 위해 기도와 봉헌을 정성껏 합시다
 2.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3.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4. 중·고생 미사: 매 토요일 오후 5시30분
 5. 대학생 모임: 10시 미사후 모여 대화
 6. 브레시디움 단장 회합: 오늘 꾸리아 회합후, 사도회 회의실에서 회합이 있으니 빠질없이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33,070원 교무금: 703,000원